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org/english  
일본어판 gpnews.org/japanese  
중어판 gpnews.org/chinese



2010. 10. 3 창간

창간 14주년 기념호

2024. 9. 29 ~ 2024. 10. 19 제306호

## 美·유럽 학교, 부작용 속출하는 스마트폰 사용 제한 증가 추세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과 유럽 학교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 앨라배마와 같은 일부 주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 통신 기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델라웨어 주는 학생들이 하루 동안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파우치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플로리다주는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공중보건국장 비벡 머시(Vivek H. Murthy) 박사는 미성년자를 위한 소셜 미디어에 경고 라벨을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고 라벨은 알코올과 담배 같은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만 사용돼 왔다.

유럽 상황도 마찬가지다.

벨기에 프랑스어권 학교 수백 곳이 이르면 가을학기부터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9월 초 폴리테크 유럽판이 보도했다. 이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학생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프랑스 역시 9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200개 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네덜란드도 올해부터 학생이 산만해지고 성적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PC, 스마트워치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일랜드 교육부도 지난달 말 초·중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각국 학교들의 이 같은 조치는 스마트폰이 청소년에

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다. 캐나다 퀘벡주 서브룩대학 캐럴라인 피츠패트릭 박사팀이 지난 8월 의학 저널 JAMA 소아과학(JAMA Pediatrics)에 발표한 미취학 아동의 부모 315명을 대상으로 3년간 태블릿 사용과 분노·좌절 표현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3.5~5.5세 때 태블릿 사용이 증가하면 분노·좌절 표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때 태블릿 사용 시간이 하루 1.15시간 많은 어린이는 4.5세 때 분노·좌절 표현이 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노·좌절 표현과 태블릿 사용 시간의 관계에서는 4.5세 때 분노·좌절 표현이 많은 어린이는 5.5세 때 태블릿 사용 시간이 하루 0.28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신병철·김명자 교육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 “혈기 많던 내가 이제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소망이다. 그러나 죄와 피흘리까지 싸우며 십자가의 생명을 만나는 길은 만

만치 않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 것이 되기 까지 포기치 않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온 신병철·김

명자 선교사를 만났다. 다음세대를 선교사로 양성하는 헤브론원형학교의 교육 선교사로 헌신한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89)

## 불순종은 사람의 자연본성이다

창세기 10장에는 민족과 국가 형성의 계보가 기록돼 있다. 여기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밝혀준다. 그런 후 창세기 10장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손들이며 이들은 홍수 후에 여러 나라와 민족으로 나누어졌다.”(창세기 10:32 KLB)

또다시 수백 년이 지났고, 지구상의 인구도 상당히 늘어났다. 역사가들이 문명의 요람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이동해 보자. 그곳은 '바벨'이라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 해당한다. 대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

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창세기 9:1 KLB)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의 계획을 추가하려고 했다.

첫째,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면서 큰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사람은 '순종'에 관한 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따로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사람의 불순종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불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자연본성이기 때문이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이 바벨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문제였다.

둘째,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할 뿐 아니라 탑을 쌓아 스스로 영광을 누리려 했다. 그들은 우리 이름을 떨치고 싶다고 했다. 우리도 사탄의 은밀한 속삭임에 저항하기 힘든 순간을 많이 경험한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 앞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에 전혀 옳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자! 사람이 스스로 대단한 존재가 되려 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할 때는 언제나 '교만'이라는 죄의 본성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편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사

람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는 시도를 하기는 상당히 괴롭기 때문이다.

사람의 계획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람은 또다시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 에티오피아, 몸값 노린 납치 공증...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기다리며



▲ 에티오피아 소녀들. WMM 제공

**분홍색** 풍선 왕관을 쓴 소녀가 사탕을 두 개나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앞을 바라보고 있다. 친구와 사탕을 하나씩 나눠 먹으면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놀 준비 끝! 앞으로 펼쳐질 아이들의 삶 속에 푸르르고 달콤한 시간들만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내전 중인 에티오피아는 최근 몇 년 간 몸값을 노린 납치 범죄가 급증했다. 지난 7월, 암하라주의 민병대인 파노

(Fano)군들은 민가에 들이닥쳐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 납치범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몸값을 요구했고,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 몸값의 일부를 주고 납치된 사람을 구해냈다. 또 데바르크 대학교에서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가던 버스가 반군인 오로모 해방군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사람들이 납치됐다. 몇몇은 탈출했지만, 탈출하지 못한 학생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몸값을 담보한 인질이 됐다.

누가 이들에게 아름답고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돌려줄 수 있을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옴과 평화를 누리는 예수교회! 어둠의 세력을 뚫고 일어나 푸르른 생명의 들판을 짚주하게 하시기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옴을 받았도다”(사 53:5) [GPNEWS]

## 자살한 기독교인의 장례 절차,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 자살 유혹에 직면한 사람에 대한 돌봄과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족 구성원을 가진 기독교인 유가족을 돌보는 '자살 유가족 돌봄'을 주제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지난 9월 14일 성산 콜로키움을 가졌다.

이날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표(전 총신대 교수)는 성경적 근거를 토대로 자살한 유가족의 구원 문제와 장례 절차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구원은 오직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인간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적 관점으로 자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먼저 “자살은 하나님이 행사하셔야 할 인간 생명의 종결권을 인간이 자의적으로 탈취하는 행동이기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행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이는 교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성경이 자살에 대해 특별히 논평을 하지 않은 것은 성경이 자살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6계명을 어기는 행위이기에 타인의 목숨을 죽이든 자기 목숨을 죽이든 하나님의 형상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곤 신당을 무너뜨린 삼손(삿 16:23, 28~30)에 대해 개혁주의 전통의 주석은 “삼손의 자살이 비상한 전쟁의 상황에서 민족을 구하기 위한 장렬한 전사로서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평가한다.”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행한 신앙의 조상들을 소개할 때 아무런 논평없이 삼손을 목록에 포함시켰다(히

11:32~34)고 전했다. 또 블레셋 군과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에 몸을 얹으려 죽은 것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로서 “사울을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해석 이상의 논평은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스로 목을 맨 아히도벨이나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의 경우와 같은 명백한 자살에 대해서도 자살을 특정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죽음의 범주에서 자살을 다루고 있다. 다만 아히도벨의 경우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과 다름없는 장례 절차를 치렀다고 소개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은 가롯 유다가 ‘제 곳’으로 갔다는 설명에서 ‘제 곳’은 지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유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민간인 5350명 살해”

미얀마에서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숨진 민간인이 500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18일 AFP통신 등을 인용해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보고서에서 쿠데타 이후 군부가 살해한 민간인이 5350명이며 체포된 민간인은 약 2만 7400명이라고 말했다. OHCHR은 “군정 체제에 반대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범죄화하고 있다.”며 끔찍한 고문이 만연하는 등 법치 공백 속에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를 무력으로 통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군정을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 조지아, 엘지비티(LGBT) 선전 금지 법안 채택

동유럽 국가 조지아 공화국 의회가 엘지비티(LGBT)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8일 보도했다. 조지아 의회는 지난 17일 3차 및 최종 독회(심의)에서 LGBT에 대한 선전을 금지하는 ‘가족 가치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LGBT를 표현하는 무지개 깃발 사용을 금지하고,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 아닌 결혼의 등록, 동성애 커플의 미성년자 입양, 성전환 수술 등을 금지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조지아를 축복하시고, 진리 안에서 바른 가치가 세워져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 韓 이단 단체, 군장병·소외계층 포교 활동 강화

국내 주요 개신교 교단에서 이단·사이비로 규정한 단체들이 국군장병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지난 19일 전했다.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지난달 충남 논산 연무읍 육군훈련소에서 10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군 선교센터’를 착공해 짓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는 최근 한 군부대에 위문 행사 개최를 수차례 제안했다. 한국기독교교단연합회는 최근 육해공군 군목단에 공지를 띄우고 이단 경계를 당부했다.

사람들의 영혼을 거짓으로 가로채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단·사이비 단체들을 엄히 꾸짖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선명한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GPNEWS]

4차 **느헤미야52일**  
프로젝트

2024. 10월 1일 ~ 11월 29일

- 참여대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 기간** 2024년 10월 1일 ~ 11월 29일 중 하루를 정합니다. (단, 주일은 제외)
- 기도방법** 느헤미야52기도 6중 기도정보 중 하루에 한 권을 선택하신 후, 정하신 날짜에 하루 24시간 기도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 장소선정** 이 기도에 함께 연합할 분들을 동원하여 가정이나 교회, 어디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도24-365 홈페이지, 010-9440-4365 (느헤미야 담당자)

오늘의  
기도방송

9월 2일~27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기간 9월 2일 ~ 27일(매주 월~금)  
시간 아침 6시~7시 “생방송”  
방법 YouTube “기도24365” 채널 구독  
문의 010-387-24365



# 美 경제계 소수자 옹호 '후퇴' 움직임... 법원 판결과 반(反)DEI 활동 때문

다양성·형평성·포용성

## MS, 포드, 로우스 등 소수자 옹호 정책 축소

미국 유명 기업들이 엘지비티(LGBTQ+) 정책과 관련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이하 DEI) 관련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미국 경제계에서 소수자 옹호 흐름이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내린 소수자 우대정책 위한 판결과 보수 활동가들의 반(反)DEI 노력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교계 일각에서도 DEI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 언론사 악시오스(Axios) 등 현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포드(Ford)·로우스(Lowe's) 등 미국 유명 기업들이 DEI 옹호단체 휴먼라이츠캠페인재단(HRC)의 기업 평등지수(CEI)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등 소수자 옹호 정책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I는 정부·기업·대학교 등 사회 각 기관이 직원 채용과 보상 등 여러 측면에서 인종과 성별 등의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정책이다.

이는 1960년대 미국을 휩쓴 흑인 민권운동과 이에 따른 민권법 및 소수자 우대정책의 도입에 그 뿌리가 있다. CNN에 따르면 최근에도 2020년에 흑인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하면서 흑인생명존중운동(BLM)이 폭발하자 미국 기업들은 소수자를 차별한다는 공격을 피하려 유색인종 고용 확대와 흑인대학에 투자증대 등을 약속하는 등 DEI 관련 정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HRC는 미국 최대 규모의 LGBTQ+ 옹호단체로 DEI 확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02년부터 CEI를 통해 매년 기업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내 LGBTQ+ 관련 정책을 평가하며 'LGBTQ+가 평등하게 일하기 좋은 최고 직장'을 선정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체 목록을 공개한다.

미국은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업 다수가 DEI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2023~24년 CEI와 관련해 총 1400여 개 기업이 점수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구글(Google), 디즈니(Disney),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Amazon), 애플(Apple), 포드 등 600여 기업이 해당 지수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에서부터 DEI 정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인사이드(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IT업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7월 직원 수천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DEI와 관련한 시스템 변화 작업은 더 이상 현명하지도 사업에 중요하지도 않다면 DEI 전담팀을 해체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완성차업체 포드가 8월 29일(현지시간) 짐 팔리(Jim Farley) 최고경영자 명의로 직원들에게 사내 메모를 보내고 HRC가 실시하는 LGBTQ+ 포용성 연례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경제지 슈퍼뉴스(Supernews)에 따르면, 위스키 제조업체 잭 다니엘스(Jack Daniels)를 소유한 브라운포먼(BF)은 경영진 보상을 (DEI와 관련된) 다양성 목표와 연결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건축자재 업체 로우스는 8월 28일 사내 메모를 통해 소수자 직원들을 대표하는 각 조직을 하나의 우산 조직으로 통합하고 CEI 연례조사에 불참할 것이며 LGBTQ+ 행사에 대한 후원과 참여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로우스의 이러한 조치는 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아프리카계 미국인 마빈 엘리슨(Marvin Ellison)이 이끌어 온 로우스는 지난해에도 CEI 만점을 받았고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왼쪽부터 미국 기업 마이크로소프트·포드·로우스. Unsplash의 Sam Torres, 포드·로우스 웹사이트 캡처



(Charlotte)에서 개최된 게이 퍼레이드를 스폰서로서 지원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와 CNBC 등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 및 줌(Zoom)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DEI를 대폭 손질하고 나섰다. 줌은 2024년 초 DEI 전담팀을 해고했으며 구글과 메타도 지난해 DEI 관련 프로그램들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Tesla) 회장 등 유명 기업인들이 소셜 미디어에 글을 써서 DEI에 직격탄을 날리는 사건도 있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DEI는 죽어야 한다면서 차별을 다른 차별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종식시키라고 비판했다. 그는 DEI는 인종과 성별 등에 기초해 사람을 차별하는 등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올해 1월에는 DEI가 "인종차별의 또 다른 단어일 뿐"이라며 "이를 사용하는 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맹폭했다.

빌 애크먼(Bill Ackman) 퍼싱스퀘어캐피탈(PSCM) 회장도 1월 X 게시물 통해 DEI 때문에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서 능력주의가 훼손되고 유능한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분개했다.

### 텍사스·유타·노스다코타 등 30여 개 주, DEI 규제법안 발의 및 가결

미 정계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3월 앨라배마주(Alabama)는 대학과 공립학교에

서 주정부·연방정부가 DEI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을 못하도록 막는 법을 제정했고 플로리다주(Florida)도 올 초 DEI와 관련해 주(州)기금과 연방기금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한 바 있다.

미 NBC뉴스의 4월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유타주·노스다코타주 등 보수세가 강한 주들을 중심으로 30개를 웃도는 주들에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DEI 규제법안 100개 이상을 발의·가결하는 등 미국 내 정계계가 합심해 DEI 확산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처럼 미국 각계가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데는 최근 몇 년 새 소수자 우대정책을 놓고 미국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과 함께 예전부터 투쟁한 반DEI 운동가들의 노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대입시에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는 '공정한 입학에 위한 학생들(SFA)'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해당 정책이 백인·동양인 지원자를 차별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놓고 학생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의 영향으로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인종·성·장애 등과 관련한 차별을 완화하고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로 흑인과 히스패닉 등만 대입시에 가산점을 받으면서 백인과 동양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조치와 함께 캘리포니아·미시간·오클라호마 등 9개 주는 일찌감치 공립대에서 인종에 근거한 입학 특혜를 금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판결은 DEI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더욱 강하게 목소리를 낸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포춘지(Fortune)에 따르면 해당 판결 이후 공화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주요 기업에 서한을 보내 피부색에 따른 차등 대우를 중지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더해 꾸준히 이어진 활동가

들의 노력도 DEI 흐름 퇴조에 기여했음이 나타났다. 일례로 보수 성향 활동가 로비 스타벅(Robby Starbuck)은 예전부터 기업체들을 상대로 DEI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투쟁을 이끌며 로우스와 포드 등의 DEI 축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슈퍼뉴스에 따르면 그는 한때 뮤직비디오 감독이었으나 현재는 60만 명 가량의 팔로워를 앞세운 보수 활동가로 변신했다. 그는 DEI가 소수의 극좌파 극단주의자들이 주도하는 흐름이라면서 기업들에게 분열적인 정치·사회문제가 아닌 고객과 비즈니스 결과에 집중하라고 충고한다.

그는 지난 27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자신이 로우스와 존 디어 등을 온라인으로 공격했다면서 그가 게이 행사 자금지원 등 (민감한) 사안들을 폭로하겠다고 선언하자 업체가 황급히 DEI 정책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로우스는 대변인을 통해 DEI와 관련한 정책 변화는 이미 예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미국 내 기독교인들도 DEI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단호한 태도를 촉구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일했던 정치 활동가 윌리엄 울프(William Wolfe)는 "보수적이거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회사에 DEI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독약을 조금만 마셔도 죽는 것과 같다"며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약 2:1)"고 말했다.

청소년 목회자 겸 고교 교사인 벤 키슬링(Ben Kissling)도 기독교 언론사 크리스천포스트(The Christian Post)에 투고한 기고문에서 DEI가 "참된 기독교 도덕을 교묘히 변형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독교적 동정심을 이용한다"며 "이는 성경적 정의로움이 아니며 적들의 거짓말임을 쉽게 알아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GPNEWS]



C.H.



▲ 미국 뉴욕 거리의 사람들. Unsplash의 Chris Johnson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 십자가 능력으로 달려가는 신병철·김명자 교육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 • 1면에 이어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신병철(이하 신):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헤브론원형학교를 섬기고 있는 교육선교사 신병철입니다.”

김명자(이하 김): “남편인 신병철 선생님과 두 아들 정윤, 정인이의 엄마이자 헤브론원형학교 교육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명자입니다.”

- 두 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토속 신앙을 믿으셨고 뭐든지 빌었어요. 큰형님이 군대에 가면 밥 굶지 말라고 밥그릇도 올려놓고 빌고, 돼지가 죽으면 더 이상 돼지가 죽지 말라고 또 빌었어요. 그리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30세 무렵 교회에 가게 되면서 너무나 기뻐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세상을 떠나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죽으면 나는 영원히 사라지는구나. 내가 사라져도 이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구나. 나는 사라지지만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쁜 소식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김: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웬지 모르게 교회가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게 큰 위로가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청년 때는 특수아동교육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장애아동들을 섬기는 간사로 사역했어요. 결혼 이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전도도 열심히 했지만, 복음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일의 원동력이 ‘나의 의’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기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 죄를 이길 힘이 없는 나에게 절망하다

- 교육선교사로 헌신하기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신: “저는 형님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에 다녔어요. 낮에는 일하고 야간에 강원대 토목공학과에서 공부했어요. 학교는 6시에 시작해서 10시 정도 끝나는데, 끝나면 모여서 술 마시러 가는 분위기였어요. 모두 술을 잘 마셨어요. 그때 저는 “하나

님 믿습니다.” “술 안 먹습니다.” 하면서 신앙을 지켰죠. 주위 사람들이 “술 안 먹고 어떻게 여기서 막노동하려고 그래.”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래도 저는 술을 안 먹었어요. 그렇게 3년 공부를 마치고 이제 현장에서 대리인으로 일하게 됐죠.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접대를 해야 되는데, 버티다 버티다 한계가 오면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는 10분의 1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술을 한 번 마시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비참했어요. 나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죄를 이길 수 없는가? 또 교회 다니는 지체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상황만 되면 제가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 한순간 때문에 모든 관계가 틀어졌어요. 생각으로 살인하고 미워하면서 계속 괴로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행동이나 생각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통제가 안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 없었어요. 갈급한 마음에 혼자 기도원을 찾아다녔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지만 술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러다 마지막 한 기도원에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말씀을 더 알고 싶었어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어요.”

-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네요.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신: “성서신학원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 2년 동안 신학을 가르치는 과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 나오면 전도사도 할 수 있고 신학대학교 3학년에 편입해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신학원의 모집 요강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신학을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도 죄를 이기면서 산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신학원에서 알게 된 한 분이 복음학교를 소개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살고 싶으면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2013년 9월에 복음학교에 참여하게 됐어요.”

- 죄의 문제가 복음학교에서 해결됐나요?

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복음학교에 다녀오더니 달라졌어요. 남편은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일단 화부터 냈어요. 그런데 복음학교 다녀오고 나서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그런 걸 본 거죠.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복음학교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부탁하는 경우는 있어도 남편이 저에게 부탁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었어요. 뭐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복음학교에 참여하게 됐어요.”

- 두 분이 복음학교에 참여하신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신: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복음학교를 주관하는 순회선교단에서 하는 6개월 합숙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것보다 영생의 문제가 제게 더 컸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주님이 휘몰아치듯 저를 빈틈없이 이끌고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계획을 해서 왔다면 절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사관학교 훈련을 받게 됐어요.”



▲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신병철 선교사 제공

김: “남편이 복음사관학교 간사이 저도 중보기도학교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복음사관학교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뭔가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꿈을 통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너무 선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벽기도에서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묵상하는 데 바로 알겠더군요. 주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 모습이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지금 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후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복음사관학교 원서를 내고 은혜로 훈련을 받게 됐어요. 훈련을 받으면서는 너무 행복했어요.”

###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받다

- 복음사관학교 이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궁금합니다.

신: “훈련을 받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내 안에 욕구를 따라갔어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저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 상태로 다시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어느 순간 나는 또 그 죄 가운데 넘어져 이길 수 없다

는 마음이 들었어요.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아직도 열기가 있어서 저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서 더 훈련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헤브론원형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가끔 학교를 방문하면서 여기에는 말씀과 기도, 예배가 있으니 이곳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마침 선교사 파송단체인 요셉의창고에서 6개월 훈련을 받고 해외로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지금 아직 열기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면 안 된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헤브론원형학교에서 섬기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2016년 2월에 아내와 함께 헤브론에 와서 저는 학교 관리부에, 아내는 주방에서 섬기게 됐어요.”

- 학교를 섬기시면서 어떠셨어요?

김: “저는 결혼해서도 밤물도 잘

못 잡았어요. 남편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이는 법, 밥하는 법을 전부 가르쳐줄 정도였어요. 저는 9남매 중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요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주방으로 가야 한다면 딱 겁부터 났어요. 차라리 밖에서 돈을 벌려면 낫겠는데, 주님이 주방으로 부르셨으니 거부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으로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나의 옛 자아를 확실히 부인하고 십자가가 실제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방을 섬기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이 시간이 저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어요.”

신: “제가 복음이 실제 된 것은 헤브론원형학교에 와서였어요. 처음 온 한 달은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곧 관계 싸움이 시작됐어요. 한번은 한 선생님과 우리 자녀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아내는 울면서 어려운 마음을 제게 나눴어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그렇게 말했지만 그때부터 마음속에 씨름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어요. 나는 그때 주님 사모하는 마음에 무엇을 하든 천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척 고민했어요. 그러다

아침 예배 때 그 선생님과 마주치게 된 거죠. 제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사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때는 격한 감정으로 대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욕해 본 건 처음이에요. 내가 복음사관학교 협력간사까지 하고 왔는데 이렇게 심한 표현을 할 수가 있나. 속으로 자책이 됐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한 선생님이 와서 말했는데,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황당한 거예요. 교육선교사로 왔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 행동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보따리 싸서 가야겠다. 황당해 하고 있던 그때 그 선생님이 보낸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본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는 얘기였어요. 저야말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너무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수습됐어요.”

- 어려운 일이 많으셨군요. 그 어려움들이 이제는 해결되셨나요?

신: “이후로도 여러 선생님들과 부딪침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셔야 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관계가 어려워져 한동안 교무실에 안 들어가고 밥도 혼자 먹으면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원형탈모도 생겼어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아내에게 여기를 나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란 걸 알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금식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왜 안됩니까?’ 치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던 응답이 바로 이곳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시작하다

-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군요.

신: “제 존재 자체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비참했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과 복음스터디를 하고 오스왈드 체임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다 보니 주님이 늘 말씀해주셨어요. ‘나는 너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한다. 내가 허락한 이 상황과 사람은 실체가 아니다. 허상이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생명이 실제 되기 위해 내가 이 사람들을 너에게 보냈고 이 상황을 허락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GPNEWS]

Y.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선교 통신

# 민주 콩고, 난민 지원과 복음캠프... 선교사로 헌신하는 청년들



1 민주 콩고 고마 난민촌의 난민들이 구제품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2 고마 헤브론과 마공동체 청년들. 윤성운 선교사 제공

콩고민주공화국(민주 콩고) 동부의 고마시 근교에 현재 12만 명의 난민이 살고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내전의 여파가 미치며 이렇게 난민촌이 형성됐다. 올 초 난민촌은 4곳에 10만 명 정도였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 지난 8월 말 현재 난민촌이 6곳으로 늘면서, 이렇게 난민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식량과 주거지, 그리고 건강이다. 이들에게 학교생활은 사치이고, 하루

세 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대 빈곤이 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일상적인 사고와 판단, 이해가 통하지 않는 무정부 시대에 이들은 놓여 있다. 이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식량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비정부기구(NGO)와 교회 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있을 뿐이다.

이곳의 아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실 리 없다. 민주

콩고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한국의 교회에서 구제비를 보내주셨고, 어떤 교회 여전도회는 그동안 선교 목적으로 모아두었던 귀한 헌금을 선뜻 보내주셨다.

이들을 돕기 위해 그동안 혜택을 잘 받지 못하던 가정을 찾았다. 난민들 가운데서 줄서기조차 밀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구제 현장에서 어떤 책임자의 가족, 지인은 구제 물품을 중복으로 받기도 한다. 하지만, 뒷줄에 머물러 있던

자들은 구제품을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이번에 그런 가정을 찾았다.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조사해 10kg의 옥수수 가루를 1300여 가정에 전달했다. 우리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12만 명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다. 적은 무리이지만 옥수수 한 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된다. 미리 나누어준 '표'를 가지고 온 난민들은 잠시지만 그동안의 배고픔을 줄일 수 있는 옥수수 포대를 머리에 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소망을 잃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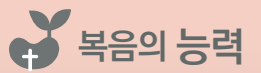
주님은 7년 전에 이곳 민주 콩고 고마시에 아무 계획도 없는 우리를 보내셨다. 그리고 2명의 청소년과 시작된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복음 선포, 예비 선교사 훈련, 그리고 한국의 복음기도 동맹군들과의 연합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도록 주님이 이끄셨다.

육의 양식에 이어 영의 양식도 나눠졌다. 지난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준비된 청년 선교사 4명과

용감한 정예병 4명, 처음부터 끝까지 통역 없이 현지어 스와힐리어로 복음캠프가 진행됐다. 복음캠프 이후에 자신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여 공동체에 지원서를 작성한 사람이 모두 23명에 이르렀다. 이제 다음세대 선교사로 지원한 학생 중 10명을 선발, 새로운 공동체가 구성된다. 이 일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서 출발됐다. 따라서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을 뚝 뚝이다. 그동안 이곳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헤브론 공동체 선교사들은 벌써부터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섬김의 자리가 무엇인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이 주시는 힘이다.

[GPNEWS]

콩고민주공화국= 윤성운·김경희 선교사



## 오늘은 회개할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쁜신 뜻을 따라 당신에게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신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영혼이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될 때, 동녘에서 솟은 찬란한 태양이 “내가 어제 당신에게 빛을 비추었고 오늘도 비추는 것은 당신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당신이 하루 세 끼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들이 “우리가 당신의 육신을 지탱하는 것은 당신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네가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 회개하라고 당신을 촉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손을 내밀어 회개로 친히 이끄시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GPNEWS]

‘내 주께 굴복하라’ (C.H. 스펔전)에서 발췌

## 독자편지

### 항구도시 목포에서 전도지로 배포되는 복음기도신문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6호가 발행되기까지 늘 수고하시며 기사작성과 편집 및 다양한 선교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 담당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쉬지 아니하고 보내 주시는 복음기도신문은 이곳 목포라는 항구한성교회에서는 전도지로 사용하고 주변에 전도지로 사용하고 예배 후 성도들이 한두 장씩 가져가서 지인들에게나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 목포는 22만 명의 작은 도시로 목포를 중심으로 신안·무안·함평·해남·진도·완도·강진·영암·장흥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또 신안군 섬마을 주민들에게는 목포가 시외로 나가는 출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기도신문은 여러 곳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특히 신안 지역에도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성교회를 방문

하시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 장씩 가져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구 도심마을에 위치해 때로는 교회 전도지도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전도지나 주보를 전도지로 사용할 때는 언제든지 복음기도신문은 형제·자매처럼 같이 전달됩니다. 어떤 분은 복음기도신문에 감명받고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보고 있는 코너는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위의 세 가지 코너는 항상 설교 말씀처럼 읽고 있는 코너입니다.

특별히 복음기도신문이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발행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독료도 없이 무상으로 보내주시기에 이곳 작은 교회에서는 전도지로 사용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후원하시는 교회·개인·단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후원자가 있어서 복음기도신문이 쉬지 않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끝으로 복음기도신문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로 후원할 것입니다. 복음기도신문이 쉬지 않고 발

행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애독자·구독자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업장 위에 신문발행 관계자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GPNEWS]

윤종수 목사(목포한성교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9)

#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 출발해 믿음으로 결론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단번에 끝내신 죽으심이다. 그러나 나도 예수 안에서 죄와 영원히 이별해서 옛 사람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됐다는 것이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나의 옛 감정과 익숙한 죄된 습관이 남아 있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나의 옛 감정과 죄된 습관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처리됐어.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에 죄에 매이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믿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

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 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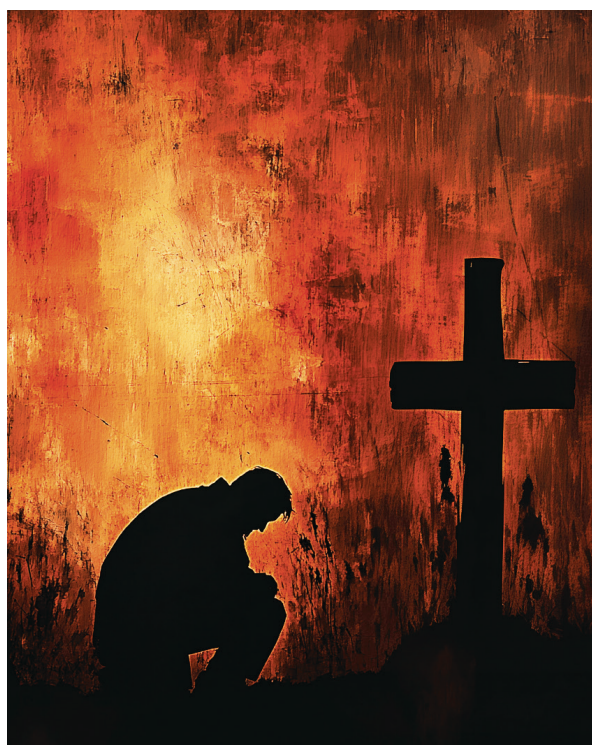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몸의 주인이 바뀌 었음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을 바뀐 집 주인에게 인격적으로 온전 히 드려야 한다. 그것을 헌 신이라고 한다. 즉,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생명의 주체가 돼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 때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다. 기꺼이 인격적 결단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지 않는 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없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한 거듭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이 구원과 헌신의 진리가 실체가 된다. 자아 추구하던 옛 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뒤집어지고 바뀌어야 한다.

천지의 역사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꾸어야 하고 사람을 바꾸려면 그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 그 중심을 바꾸는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충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진리가 비취주시는 길을 따라서 걷게 하신다. 나 곧 죄, 병든 자아의 슬프고 불가능한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보리 언덕 십



일러스트=A.I 제작, Midjourney.

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와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사

라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 엄청난 복음의 의를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우리 영이

그 진리에 화합하여 아멘 하게 된다.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고 주와 함께 살어나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시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된다.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사실을 생명처럼 붙들고 외쳐야 한다. 누구도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천국이 실체가 된 사람들,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몸 이룬 교회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이다. (2018년 9월) <계속>

[GPNEWS]

김용의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 야긴과 보아스

Jakins & Boaz

1 투어

- 단기선교, 아웃리치 패키지  
현장 선교사 연결(아프리카, 동아시아 등) & 항공권
- 성경문화탐방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선교사 가이드
- 신혼여행  
·복음기도동맹군 신혼 여행지 숙소 & 가이드 연결
- 항공권 발권 대행

2 도서

- 김용의 선교사 저서, 느헤미야 기도정보 순회선교단 복음선교관학교 & 중보기도학교 필독서
- 야긴 추천도서 50% 할인

3 전도용품

- 메시지 머그컵·텀블러
- 복음 마스크

문의 |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 eBook

00-01시  
1.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11.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12.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13.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14.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15.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16.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17.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18.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19.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20.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21.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22.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23.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24.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25.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26.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27.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28.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29.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30.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31.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32.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33.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34.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35.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36.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37.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38.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39.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40.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41.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42.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43.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44.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45.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46.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47.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48.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49.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50.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51.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52.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53.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54.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55.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56.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57.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58.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59.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60.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61.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62.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63.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64.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65.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66.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67.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68.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69.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70.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71.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72.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73.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74.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75.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76.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77.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78.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79.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80.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81.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82.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83.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84.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85.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86.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87.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88.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89.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90.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91.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92.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93.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94.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95.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96.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97.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98.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99.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100. 하나님보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스24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복음기도총서2

GPM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eBook도 있습니다

김용의 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나의 옥합을 깨뜨리며 믿음의 은사를 붙잡다”

오랜만에 순회선교단 미주 지부에서 주관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했다. 그 직전까지 열방수련회에 참가해 보라는 권유에 직장 때문에 힘들 거라며 단번에 거절했다. 바빠서가 아니었다. 사실 토요일 훈련에 참여하는 나는 이미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리고 있다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주에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일시 해고를 당했다.

이미 내가 보였던 태도가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납작 엎드리며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 열방수련회도 가지 않던 내가 목요 열방기도회도 참석했다. 그 날 선교사님과의 교제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다. 나의 약속의 말씀인 나의 옥합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나의 옥합인 시간과 재정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온전히 훈련에 집중하기로 결단했다.

말씀에 흠뻑 젖어 있던 내게 아웃리치 준비기간은 마냥 행복했다. 그러다 구약 일독을 마치고 주님께 감사기도드리던 바로 그날 아침, 갑자기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그 순간, 의사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혼자 견딜 수 있는 한계선을 넘었다는 생각에 아무런 힘

도 낼 수 없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훈련학교 조장님의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뜬 이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였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 기도회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 자리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 상태에서 집에 가 봤자 나의 결론은 도피일 뿐이다. 기도회에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었다. 몇 시간 기도하던 중 내가 느헤미야 기도를 인도하게 됐다. 찬양집을 무심코 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양이 나왔다. 찬양을 부르며, 여전히 건강, 나의 몸마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됐다. 주님은 그렇게 나의 건강의 옥합도 깨뜨리기로 결단하게 하셨다.

16박 17일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아웃리치를 떠났다. 나의 전부를 드린 아웃리치였기에 이적과 기적을 볼 것을 기대하며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한없이 드러내셨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으나 속에서는 전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주님은 보게 하셨다. 나의 기준, 습성, 질서, 감정, 생각, 가치관들을 끝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나였다. 현지교회와 말씀기도,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일러스트=고은선

보며 받은 은혜는 너무 컸다. 그러나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죽지 않는 나의 자아, 그 괴리감이 너무 커 양심을 괴롭게 했다. 그렇게 아웃리치를 다녀온 후 실패감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처음 복음선교관학을 시작할 무렵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됐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눅 7:38)

시간, 재정, 건강을 주님께 맡김으로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으나,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지는 못했음을 깨달았다. 예수님 곁에 서서 나의 가치관, 질서, 생각들을 앞세우며 절대로 예수님의 웃김에 스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나를 보게 됐다. 결국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나의 의

지로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아웃리치 중 선교사님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기대고 싶은 마음에 팀장님에게 선교사님께 기도 받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기도해 보고 알려주시겠다 하여 기다렸다. 돌아온 팀장님의 답은 지금도 계속해서 마음에 울린다. 그 은사는 내게도 있다는 것이었다. 바로 믿음의 은사였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믿는 것이 나의 은사라는 답이었다. 오늘도 그 조언은 변하지 않은 나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소망의 이유가 된다. 어김없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선교하시는 주님의 열심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오직 말씀이 결론되는 나의 선교적 삶을 통해 열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선포한다. [GPNEWS]

김선정

## 데이터로 보는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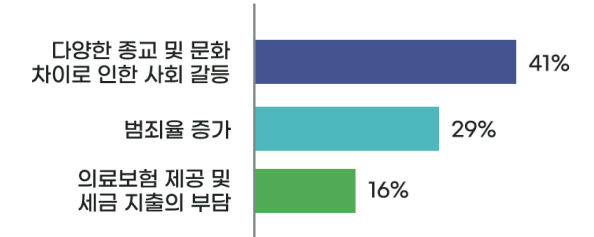
### 이주민 증가로 사회 갈등·범죄율 증가 우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은 노동인구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한편, 사회 갈등과 범죄율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최근 공개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부족, 이민정책을 통한 해결이 최선인가?’라는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이 증가했을 때 ‘노동인구 부족 문제 해결’이 기대되는 이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64%로 나타났다. 반면 이주민 인구의 증가로 ‘다양한 종교 및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 갈등’을 염려하는 사람은 41%, ‘범죄율 증가’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은 29%, ‘의료보험 제공 및 세금 지출의 부담’을 염려하는 사람은 16%로 나타났다.

#### 이주민 증가 이점 요인



#### 이주민 증가 염려 요인



(자료: 한국리서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정책으로 이 땅을 찾아온 200만 명 이상의 이주민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나그네를 전심으로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기회임을 깨닫고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GPNEWS]



## 북한 부흥을 위하여

### 韓美加, 北 억류 4000일 김정욱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한국·미국·캐나다 등이 북한에 4000일째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

변인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오늘은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째 되는 날”이라며 김정욱 선교사와 함께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그는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한 6명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 수감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거부당하고,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구금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지난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독립적 권한

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 기간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우리 국민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캐나다 외교부도 소셜 미디어에 김씨 등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북한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게시했으며, 국내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영국 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 등 민간단체도 김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기도** | 주님, 체제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억류하고 생사도 확인해주지 않는 북한 정권의 악함을 엄히 문책하여 주시고, 북한 정권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해주소서. 또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된 사람들의 믿음과 건강



▲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 유튜브 Arirang News 캡처

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증인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북한에 복음의 빛이 비취지게 하소서. [G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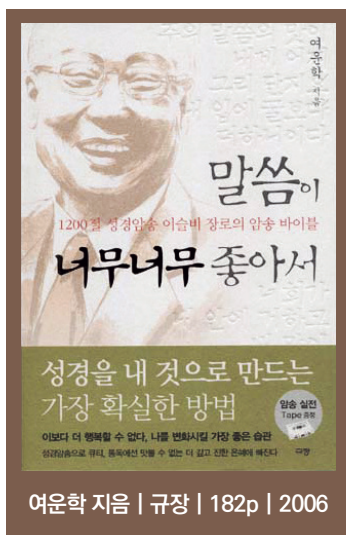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여운학 &lt;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gt;

# “내 혈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



“내 혈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른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저자의 행복한 고백이 너무나 감동스럽다. 어떻게 하면 이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사모하며 책을 펼쳤다.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 중심이어야만 한다. 성경은 모든 인생이 반드

시 붙들어야 할 유일하고, 무오할 뿐만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지침서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해야만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담감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정작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 성경에 대해서만 열심을 내는 이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 역시도 그동안 많은 신앙 서적과 참고문헌, 명설교들은 열심히 찾아보았으면서도, 매일 말씀 그 자체를 전부로 붙들어 집중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성경에 대해서(배경지식, 전문가의 해석, 원어 분석 등) 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하는 열정보다 앞섰던 것이다.

성경 말씀이 더욱 실제 될 수 있도록 돕는 저자의 제안은 정말 명쾌하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암송한다. 성령님께서 의지하며 암송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

속 묵상한다. 입에 완전히 붙을 때까지 확실하게 반복해서 암송하며 수시로 그 말씀을 꺼내 삶에 적용한다.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 완전한 연합을 누리는 이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자가 40대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다. 사실 나는 이전에도 말씀 암송을 여러 번 도전했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한 채,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서.’라는 핑계로 슬쩍 포기하곤 했다. 그러다 증인을 만나게 된 것이다. 머리가 특별히 좋거나 다른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너무도 사모해서 오직 말씀을 전부로 붙든 저자의 삶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다음세대와 부모들을 진리의 용사로 세우게 되었다.

저자에게는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다음세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다.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방을 섬기며 다스릴 신인류

(저자의 표현 그대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들이 동일한 가치와 생명력으로 말씀을 따라 다음세대들을 양육하며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헌신한다면 3세대가 지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누구보다도 부모들과 다음세대에게 말씀 암송을 생활화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일생을 바쳤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변화되어, 많은 가정이 주님만 주인 되신 교회공동체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었다. 말씀이 중심된 삶이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책 안에는 말씀 암송의 중요성과 유익, 암송을 방해하는 요인, 다양한 사례들과 구체적인 암송 방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원론에 충실하면서도 실용적인 제안까지 한 권에 다 담았다.

나도 도전받는 일에 그치지 않고 책에 나온 방법대로 다시 성경 암송을 시작했다. 씻으면서, 누워서

잠들기 전에, 이동하는 자투리 시간마다 되뇌이는 말씀은 묵상이나 통독과는 또 다른 감동과 힘으로 나를 사로잡아 진리로 인도하신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암송을 통해 내 삶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은 정말 놀랍다. 한꺼번에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암송을 지속하는 일에 나를 드리기로 결단했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머리와 가슴 속에 이 진리를 통째로 새겨버린 다음세대들이 더욱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성경대로 순종하여, 열방을 이 말씀으로 소생시키기 위해 기쁘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신인류를 통해서 선교는 반드시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속히 임할 것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시 119:97) [GPNEWS]

이귀영 선교사

청년선교  
Youth Mission

##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어요!”

청년 선교사들의 생생한 좌충우돌 믿음의 순종기를 담은 [청년 선교]. 기독교인 청년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금, 복음과 운명을 같이한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 곳곳에서 매주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소개한다. <편집자>

저희는 현재 매주 목요일마다 ‘UL316’이라는 다운증후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UL316’은 ‘무조건적인 사랑(Unconditional Love)’이라는 뜻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위해 손수건과 담요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바구니에 담아 아이를 키울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모에게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UL316 사역에 이어서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다운증후군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희는 감사하게도 거의 캠프가 끝나자마자 이 이벤트에 스태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스포츠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협력하여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다 국가대표 출신이시고, 그중에 한 분은 한국인이셔서 며칠간 이 가정과도 풍성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꿈과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힘과 위로를 받았습시다.

이벤트가 있었던 당일에는 샤프로에서 거의 가장 큰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Grace community church)’로 가서 준비한 여러 게임과 활동들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미 이 사역을 여러 번 해오셨던 저희 교회 분들은 굉장히 능숙하게 아이들을 맞이하며 놀아주셨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었던 만큼 새롭게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지음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아이들이 전부 특별했고 소중했습니다.

###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름 캠프를 했을 때, 저는 반주로 예배를 섬기고 설교를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인도자분께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엠마와 엘리(예림 자매와 저의 영어 이름)가 왜 일본에 왔을까



Unsplash의 Jezael Melgoza

요?” 한 남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아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뭔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을 위해 이곳에 온 것임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교회분이 이번 달에 이사를 하셔서 저희도 그것을 같이 돕고 에이다의 남편이신 사무엘의 차로 집에 왔는데, 집까지 데려다주신 후에 사무엘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주세요.” 그 한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세은아, 네가 나를 위하여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

하면 된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의 작은 일상과 삶, 교회 사역과 섬김,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 언어 공부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지는 순종임을 깨닫고, 경험하게 됐던 한 달이었습니다.

일본의 지진 소식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이런 위기가 찾아올수록 일본 땅의 영혼들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GPNEWS]

이세은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용감한정예병  
파송본부 제공)\*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24. 8. 28 ~ 9. 19 (가나다 순)

### 개인

강성민 권혜령 김국남 김남철 김선례 김선희 김신애 김은정 김지영 박경희 박성규 박신희 신혜경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유영권 이동엽 이미영 이삼연 이영선 이영옥 이은주 이인선(레마코) 이진희 장옥경 장옥희 정범영 정호진 조형광 최근희 최영석 최정욱 홍고집 홍찬일 황일문 무명

###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고현교회 나죽고예수사는교회 모리아선교회 문광교회 샘물교회춘천 서원교회 순화선교단 웹 주님교회 헬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pnews@kakao.com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